



전북도·삼성물산·삼성전자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송규중 삼성물산 사장, 정효명 삼성전자 부사장 등 참석자들이 '전북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 도, 삼성과 청년 지원 파트너십 자립 기반 구축 본격화

청년희망터·희망디딤돌 연계 지원 확대  
 ESG 경영도 청년 지원 결합 모델 구축  
 센터 시설 개선 지속가능 운영 추진

전북도가 삼성물산·삼성전자와 손잡고 전북 청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공동한다.

도는 지난달 31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삼성물산 송규중 사장, 삼성전자 정효명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의 '청년희망터'와 '희망디딤돌' 사업을 전북도의 청년 지원 체계와 연결하는 데서 출발해, 민·관 협업의 새 지평을 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약은 기업의 ESG 경영과 지자체의 청년 정책을 결합, ▲재정 지원 ▲공간 제공 ▲역량 교육 ▲협업 프로그램 등 4가지 축을 통해 전북 청년단체의 정착 기반 강화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협약의 첫 번째 축은 청년희망터 사업 연계다. 삼성은 그동안 익산 '미담보담', 남원 '쓰임', 전주 '블레싱' 등 7개 청년 단체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남원 '52헤르츠 고래들'과 '산내 청년공간 틈새'를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전북도 역시 청년마을 만들기·청년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해 매년 32개 이상의 청년단체를 육성하고 있어, 양측 자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경우 시너지가 기대된다.

'조직화',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업화', 지역에 뿌리내리는 '지역화', 일자리 창출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산업화' 단계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삼성의 이번 사업 또한 전북의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단계별 지원 체계와 함께 참여하며, 향후 사업 간 연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축은 희망디딤돌 전북센터의 시설 개선이다. 2021년 8월 전주에 문을 연 이 센터는 삼성전자 임직원 후원금을 바탕으로 호호종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 왔다.

현재 15세 이상 보호아동 706명(지난해 12월 기준) 및 자립준비청년 361명(25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생활실 22실·체험실 4실 등을 운영 중이다. 개소 4년이 지나면서 도배·장판 교체 등 노후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따라 관련 개보수 비용을 전북도와 삼성이 분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청년단체들이 지역 성장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립할 실질적 토양을 일궈내겠다"고 말했다.

송규중 삼성물산 사장은 "전북 청년들이 혁신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정효명 삼성전자 부사장은 "희망디딤돌 사업이 자립준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호남 정치 금품·출서기 반복 '고질병' 혁신당 도당 "경쟁 실종이 부패 키워"

혁신도당, 정치권 금품수수 논란  
 "개별 아닌 구조 문제" 지적  
 "경쟁 없는 정치, 책임성 약화" 비판  
 정치개혁특위 실질적 개혁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드러난 금품 수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은 반복되어 온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전제한 뒤 "이는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정치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러한 흐름은 지역 정치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여수시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사건과 전라북도 일부 지자체장을 둘러싼 반복적인 부패 의혹은 개별 사건을 넘어 일정한 패턴으로 축적되어 왔다"며 "이는 특정 시기나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정치 환경의 결과다"고 비난했다.

특히 "호남 정치의 현실은 더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경쟁의 밀도가 낮은 정치 구조 속에서 선거는 존재하지만 긴장감은 약화되었고, 그 결과 책임 정치 또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며 "유권자는 없고 당선만 있는 과정에 금품수수, 출서기, 패거리 정치는 항상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유권자의 평가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 이같은 의혹은 반복되며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지역 내부의 문제에만 남겨둘 수 없다"며 "탄핵이라는 현정사

의 중대한 국면 속에서, 야권 5당은 국민 앞에 정치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유사한 문제들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에 따라 "탄핵시국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정치적 책임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형식적 논의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정치의 경쟁 구조를 복원하고 책임성을 회복하는 실질적 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당은 "지방정치 역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하고 전북과 호남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할 때 비

로소 정치적 평가와 교체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역설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60년 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종이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전주페이퍼

## 민주당 "비축유 北 유입설은 가짜 법적 정치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한병도 원내대표 "강경 대응" 경고  
 에너지안보 훼손 중대 범죄 규정  
 가짜뉴스 유포 책임 끝까지 추적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민주당은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하고,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울산 비축기지의 원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확인을 했는데 완전한 거짓말이다"며 "지난번에 전한길 뉴스가 싱가포르 160조원 해외 비자금과 정보유출 가짜 뉴스를 유포하더니, 이번엔 중동 위기 상황을 틈타 음모론으로 조희수 울리



한병도 의원

려고, 장사하는 자들이다. 정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 소재로 한 의도적 선동이고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을 새워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뛰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직원들, 위기의 최전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있다"며 "이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권철승 복지위원장 소병훈 선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공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영교 의원을 선출하는 등 지방선거 출마에 따라 공식이 된 3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법제사법위원회에 서영교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권철승의원, 보건복지위원회에 소병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미애(법사위)·신정훈(행안위)·박주민(복지위)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에 이 같은 의원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의 경우에는 원내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선출된 상임 위원장들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임기를 수행한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햇빛소득마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가동

### 8개 기관 참여 현장지원단 발대식 주민 참여형 태양광 수익공유 모델 부지 발굴·협동조합 구성 밀착 지원 사업 초기 애로 해소 현장 대응 강화

전북도는 주민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날 도청에서는 '햇빛소득마을'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발대식이 열렸으며, 사업 초기 준비부터 인허가, 계통연계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도를 비롯해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진=전북도>

전북본부,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8개 기관이 참여해 사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모델이다.

단 주민 주도 사업 특성상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발굴 등 초기 단계에서 어

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도는 지원단 출범 이전부터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도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했다. 현장지원단은 주민 설명회와 상담, 협동조합 조직화 지원, 부지 발굴, 인허가 절차 지원 등 사업 준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지 확보를 위해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력해 유휴부지 발굴을 추진하고,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와 ESS 설치 필요성 등 사업 추진 여건을 사전에 점검해 사업 지원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이원택 "전북 보훈수당 250% 인상" 공약

### 농생명 연계 '보훈 꾸러미' 도입 임실호국원 일대 힐링공원 조성



이원택 의원

이 의원은 전북의 농생명 산업과 연계한 '보훈 꾸러미 사업'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고령 보훈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이들의 건강 지원과 함께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참전·보훈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훈 가족 복지체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 수당 최대 250% 인상과 함께 농생명·AI·힐링 인프라를 결합한 '보훈 체험형 복지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보훈수당 지원 현황에 따르면 우리지역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2만4000여 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은 시군 지원금을 포함해 10만~16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비 지원금은 최대 4만 원 수준이다.

이 의원은 도비 지원을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250%), 참전유공자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150%) 각각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마중물로 시군 지원까지 점진적으로

이어진다"며 "H마트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또한 AI 기반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 홀로 거주하는 보훈 가정에 AI 스피커와 IoT 기기를 보급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응급기관 및 가족과 즉시 연결되는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 의원은 "임실호국원 일대를 활용한 '보훈 힐링 공원' 조성도 추진하겠다"며 "묘역 중심 추모 공간에서 치유 정원화 산림 휴양, 역사 교육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확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전북 도내 보훈회관 시설 개선과 호국 순례 프로그램 확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美 H마트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 개최

### 바이오진흥원서 1:1 상담 진행 13개사 참여 현지 진출 전략 점검 북미 포함 수출 7억불 목표 박차

전북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미국 H마트(H-Mart) 바이어를 초청해 '전북 농수산물 수출상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H마트는 미국 14개 주에 79개 매장과 5개 물류센터를 보유한 북미 최대 규모의 한국·아시아 식품 유통기업이다.

전북자치도는 H마트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시장 내 전북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여 왔으며, 미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주요 수출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대미 수출액은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H마트 연계 상담회 2회를 통해 도내 2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중 8개 기업이 실제 수출로 이어졌고 11개 기업이 추가 수출을 앞두는 등 가



<사진=전북도>

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는 도내 식품기업 13개사가 참여해 H마트 분사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들은 제품 경쟁력과 시장 적합성을 점검받고, 품질·가격·패키지 구성 등 현지 진출에 필요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대미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후속 판촉행사와 연계해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외 유망시장 개척을 병행해 올해 농수산물 수출 7억 달러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해외시장 진출은 실제 유통망 진입으로 이어질 때 의미 있는 성과로

## 민주당 "국힘, 개헌안 불참해도 5월 11일 국회 의결"

### 연석회의 국힘 불참 6개 정당 참여 개헌안 합의 가능한 범위서 처리 국회의장 장동혁 만나·변수 주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개헌과 관련,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11일까지 국회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6개 원내 정당이 모여 제2차 개헌 추진 연석

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6개 원내 정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하기에 그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행 입장을 설명했다.

'개혁신당' 등이 요구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관련 "내용을 확장하면 개헌 논의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있던 내용 안에서 6개 정당이 모두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과 관련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동의하지 않으면 4월 7일까지 6개 정당이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의원들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5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김영목기자

## 도, 현대차와 '새만금 9조 투자' 협약 이행 점검 간담회

### 7자 공동투자협약 후속 점검 57개 중도소관 과제 현황 공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신승규 부사장과 만나 새만금 투자협약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현대차그룹이 5개 정부 부처 및 도와 체결한 '7자 공동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로, 새만금 일원에 예정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대차 측이 건의한 57개 과제 중 전북도 소관 25개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국내 수전해기 설치와 청정수소 생산

관련 중앙정부 보조금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도 차원의 지원 특례 방안을 논의했다. 새만금 초기 입주기업과 근로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조기 개통과 DRT 도입, 공공임대 확대 등도 검토했다.

데이터센터와 수전해 플랜트 등 R&D 과제는 향후 국가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며, 로봇·AI 분야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도 점검했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일원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RE100 산업단지 및 기회발전

특구 지정도 신청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7년부터 새만금 일원에 약 9조 원을 투입해 ▲로봇 제조 ▲AI 데이터센터 ▲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 등 5개 핵심 미래 첨단 산업 거점을 본격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협약 이후 현대차·국무조정실 등과의 핫라인 운영으로 '현대차 투자지원단'을 가동 중이다. 현대차 관련 전북특별법 개정안 43개 조문 발췌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로 운영 중인 '새만금·전북 대혁신TF'는 5월 중 종합 지원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행정의 모든 중심에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진안군 공고 제2026-399호

###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수  
2026년 4월 1일

####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행정구역 전체(A=789km<sup>2</sup>)
-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년 4월 1일 ~ 4월 28일(공고일로부터 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진안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람내용 : 진안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 3. 관련도서[공람도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 4. 주민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및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및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우편제출(진안군 건설교통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파일 제출

#### 5. 기타사항

-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공고 및 공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건설교통과(063-430-2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내버스 민·관 합동 암행감찰 운영

## 재점검·행정조치·재정지원 연계 사후관리 강화 12월까지 진행

전주시내버스 민·관 합동 암행감찰이 운영된다. 민·관 암행감찰 운영은 전주시내버스 안전·편리환경 개선 위해 추진된다. 특히 전주시는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현장중심 점검을 원칙으로 위반행위 예방·서비스취약요인 개선 위한 암행감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암행감찰은 △난폭운전 △무정차 △불

전절 △실제 운행 현장 각종 불편 사항 및 위반행위 등이다. 이에 전주시는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위한 실효성 중심으로 민·관 합동 암행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직접 승객 입장으로 시내버스에 탑승해 실제 이용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암행감찰은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시는 점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현장 의견 등을 폭넓게 반영한 시내버스 개선실효성에 중점을 둔다. 암행감찰은 12월까지 일반 승객으로 탑승해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된다. 1회 점검 시 최소 10개 정류장 이상 또는 20분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은 시내버스 394대, 60개 노선이다. 주요 점검 분야는 △안전 운행 △전절 서비스 △시설관리 3개 분야로 구성된

다. 위반 사항은 주간 단위로 취합·분석해 운수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또 반복 위반 사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추가 점검과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암행감찰 결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정과 서비스 평가에도 반영된다. 시는 암행감찰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주예수병원>

## 예수병원 김갑태 분과장 보건복지부 표창

### 국가 암관리사업 기여 공로 30년 대장항문외과 의료 헌신

전주예수병원 대장항문외과 김갑태 분과장이 '제19회 암 예방의 날' 국가 암관리사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갑태 분과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대장암 예방과 진단, 치료에 힘써 왔다. 김 분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분과장은 전주예수병원

에서 30년간 근속하며 수많은 대장항문 질환 환자들을 생명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묵묵히 헌신해 왔다. 오랜 기간 지역 의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그의 행보는 원내 의료진은 물론 지역사회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김갑태 분과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대장암 예방과 진단, 치료에 힘써 왔다. 김 분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전주동물원 교통 대책 추진

## 전주동물원 진입로 교통 통제 인력 배치

전주시가 전주동물원 방문객 증가에 발맞춰 맞춤형 교통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동물원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동물원 진입로 교통·주차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전주동물원은 봄철 나들이객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관광 및 여가 공간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 차량이 증가해 진입로 및 일대 교통 혼잡이 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동물원 주변 교통흐름 유지와 안전한 방문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관리 인력 7명을 집중 배치하고, 주차 안내 및 교통 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통·주차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약 6주간 운영된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통관리가 이뤄진다. 현장 인력은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덕진체련공원에서 전주동물원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흐름을 관리하고, 라바콘을 설치해 갓길 주차를 제한하는 등 차량 통제에 나서게 된다. 특히 시는 전주동물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동물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과 함께 활용해 차량 분

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주차시설은 △전주동물원 주차장 828면 △덕진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114면 △길공원 주차장 150면 등이다. 이외 동물원 진입로 주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3대가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덕진구청 산업교통과와 협력해 교통 혼잡 발생 시 단속 차량으로 즉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 '전주함께복지' 성금 활용 6개 종합사회복지관 동참

전주시가 사회적 고립 가구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주시는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나눔 기반 복지 플랫폼 '전주함께라면'을 운영해 왔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고립 위험 가구 발

굴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해 왔다. 관련해 전주시는 사회적 고립 가구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주시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평화·전북·전주·학산·선머너·큰나무)과 함께 '전주함께복지' 성금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강화 주요 목적으로는 후원금 활용한 안정적인 전주시 위기가구들의 사

회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지원에 참여한 종합사회복지관들은 SI 자동 안부 전화로 상시 모니터링과 정서 지원을 꼼꼼히 행한다. 아울러 고립가구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과 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도 연계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각 복지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 지원 △사회관계 회복 위한 마을극장 △원데이 클래스 진행 △고립청년 및 관계고립세대 지원 등 함께라면 공간 기반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와 전주시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 '전주함께복지' 성금 활용은 2026년도 4월부터 추진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시내버스 “안전·친절·정시성 높인다!”

## 시, 현장 밀착형 점검 강화 예측 가능한 운행 체계 정착

전주시가 시내버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시민 불편 사항은 줄이면서 안전·친절·정시성은 높이기로 했다. 먼저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운행'과 '친절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장 밀착형 점검을 강화한다. 또 수시 점검을 통해 무정차와 급출발·급제동 등 중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함께 재정 지원금 산정 및 서비스 평가에 엄격히 반영하는 등 운수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시내버스의 본질적 가치인 정시

성 확보를 위해 주요 거점별 통과 시간을 준수하는 운행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는 중간 구간에서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방지해 시민들에게 예측가능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시는 도로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차 여건을 조성하고 기사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안전 운행 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시는 모든 민원을 정밀 분석해 취약 노선 및 시간대를 집중 관리하고,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전주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서면신고,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있다. 미신고시 20% 가산세와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

해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기 다음달(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해와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

실 등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 강조

## 3월 27일 주택 마당 적재물 화재 발생

소방서에 따르면 3월 27일 완산구 한 주택 마당에 쌓여 있던 낚시용품 등 적재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화재 발생 후 주택에 비치해 둔 소화기를 거주자가 즉시 사용하며 소방대원도 착각하지 전 불길을 잡았다. 자칫 주택 전체로 번질 수 있었지만 초

기 화재대응으로 연소 확대를 막았다.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본적인 주택용 소방시설만 갖춰도 화재 초기 대응이 가

능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비치해 위급 상황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 구급대원 폭행 시민생명·안전 직접적인 영향 이어져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향한 신체·언어 기타 등의 폭력에 따른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사고 발생시 시민 곁을 지

키며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5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 행위는 시민 생명과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구조·구급 활동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소방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 존중 현장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위한 순화교육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과 안전거리 확보

필자를 재점검하고, 바디캠 등 장비로 활용한 현장 기록 관리로 투명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권기현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에게 보내는 배려와 존중이 곧 시민 자신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대원들이 오직 생명 구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 '최첨단 디지털 심장혈관 촬영장치' 도입

### 미세혈관까지 정밀분석 중증심혈관질환 치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최첨단 디지털 심장혈관 촬영장치를 도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디지털 심장혈관 촬영장치는 방사선을 이용해 심장 혈관을 촬영해 혈관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는 등의 시술을 시행하는 장비로서 심혈관 질환 치료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필립스(Philips)사의 최신 모델인 '아주리온(Azurion) 7B12'이다. 장비는 심혈관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

로 기대를 모았다. 해당 장비는 16비트 동적 평면 검출기(Flat Detector)를 탑재해 초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하며, 미세한 혈관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심장혈관의 좁아진 부위나 병변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중재 시술(스텐트 삽입술 등)이 가능해졌다. 전북대병원은 중증·응급 심혈관 질환에 대한 최첨단 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첨단 장비 도입을 계기로 고난도 중재시술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료 성과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서 모래내지구대 차량절도 예방 활동

## "생활속 작은 실천이 범죄 막는다!"

최근 주차된 차량을 노린 이른바 '차량털이 절도'가 꾸준히 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차량털이는 문이 잠기지 않거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 및 외부에서 내부가 쉽게 보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귀중품 등을 훔치는 범죄이다. 범죄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는 차량털이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지난달 25일 관

내 아파트 등을 방문해 차량 내 범죄 예방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홍보활동은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단속 철저 △귀중품 보관 금지 △사이드미러 확인 등 가장 기본적인 범죄 피해 안전 수칙이 담긴 홍보물을 아파트 내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하고 아파트 안내 방송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모래내지구대 박성근 대장은 "일상속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농업경영주의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인정”

## 전북농관원, 겸업 근로소득 2천만원 미만 농업인 자격 유지

국립농산물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전북농관원)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

체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권증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체제'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농관원 전북지원은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농관원 전북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들이 불이익 없이 공동경영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 등을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전북지원과 지역별 사무소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로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종현 전북지원장은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인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들이 불이익 없이 공동경영주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북전주농협>

## 북전주농협 농가주부모임 '나눔 문화 확산'

석박지 100통 담가온정 전해 이날 북전주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정성스레 만든 석박지 반찬은 인근 수녀원과 복지관, 독거어르신 등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북전주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방만한 지역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정을 나누며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나눔 활동에 앞장서 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농협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인공지능기술 활성화 지원

## AI 개발·솔루션 고도화 등 3개 분야... 총 6개사 모집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전북도의 지원으로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의 참가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은 정부의 지역 AX(인공지능 전환) 확산 정책에 발맞춰 도내 산업 현장 중심의 AI 솔루션 개발·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

로 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지역 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원 분야는 △AI 개발 지원 △AI 솔루션 고도화 지원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모집 규모는 총 6개사로 △AI 개발 지원 1개사(기업당 최대 1억4000만원) △AI 솔루션 고도화 지원 2개사(기업당 최대 8000만원) △맞춤형 패키지 지원 3개사(기업당 최대 3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도내 소재한 중견·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등으로 분야별 참여 조건이 다르다.

AI 개발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환경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AI 솔루션 고도화 지원 분야 또한 실증 기반 확보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맞춤형 패키지 지원 분야는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이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다. 맞춤형 패키지 지원 분야를 제외한 선정 기업은 사업비의 일정 비율 민간부담금을 매칭해야 하며, 협약 체결 후 단계별 평가를 통해 사업이 관리된다. 또

기업의 책임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요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전검토 평가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이 확정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전북디지털융합센터 피지컬AI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중기부, 소상공인 '위기 알림톡' 발송 시작

원스톱 복합지원 시행 '위기 알림톡'은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 대출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구체적인 상담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위기 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내 가게 경영진단(소상공인 365)'을 통해 본인 사업체의 경쟁력, 생존 가능성, 성장 전망 등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여러기관에 산재된 정부 지원에 대해 원스톱 상담·지원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위기 알림톡 발송을 시작으로 정부부처 지원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복합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정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농어촌생활 만족도 “환경·경관 높고, 교육 낮아”

## 농진청, 2025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실시한 '2025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년 1주기 부분별 심층 조사로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복지, 교육, 여가, 의료, 생활 전반 6개 부문이 조사됐다. 결과로는 △의료 부문= 지역 내 의료 여건 전반의 만족도는 51.1점이다.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87.0%), 보건소(보건의료원)(2.7%)로 나타나 의료 전용 교통편 운영 등 농어촌 의료서

비스 개선 사업으로 공공보건 기관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 진료-공공 관리-거점병원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의료 관리망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복지 부문= 복지 여건 만족도는 53.4점으로 2021년 대비 5.4점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영유아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 기관 시설 부족(28.6%)', '자녀 놀이기구 습에 필요한 정보 부족(14.1%)', '어린이집, 유치원 부족(9.2%)'을 꼽았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시스템과 농촌 공동돌봄센터 지원 등을 확대해 보육 기반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부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40.9만 원으로 2020년 대비 8.2만 원 증가했다. 사교육 수강 경험은 53.1%였다. 교육 여건 개선 사항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교육과정 운영(30.6%)', '우수 교사 확보(18.8%)', '학교시설 개선(14.3%)'이라고 답했다. 농어촌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사업,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가 필요하다. △여가 부문= 여가생활 만족도는 55.9점으로 2023년보다 1.0점 감소했다.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제약 요인으로 '지역 내 적합한 시설·장소 없음(23.5%)', '비용 많이 들(14.7%)', '지역에 해당 공연 없음(12.2%)' 등을 꼽았다. 이를 개선하려면 생활권 거점 여가 환경 조성, 이동 비용을 줄이는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농어촌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단계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경제활동 부문=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23.2%)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100~200만원 미만(21.2%)이

뒤를 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는 177.1만원이었다. 식료품(50.7%)이나 생활용품(44.0%)은 농수축산물 직판장, 로컬푸드 매장, 하나로마트에서 많이 구매했다. 특히 생활용품 구매는 '인터넷 쇼핑물 이용'이 23.2%로 2014년(1.4%)보다 많이 증가했다. 농촌지역 소비 접근성을 높이려면 농촌형 공공-민간 협력 유통망 구축 등으로 지역 내 소비시장을 확충해야 한다. △생활 전반 부문= 지역 생활 종합 만족도는 56.8점으로 2024년보다 2.0점 증가했다. 환경·경관 만족도가 66.1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 여건 만족도는 48.6점으로 가장 낮았다. '2025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nongsaro.go.kr)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국민연금-카카오, AI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달 31일 공공기관 최초로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와 '인공지능 기술 협력'과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민관 인공지능 협업'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을 대표할 우수사례'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에 이어 공공기관 중에 최초로 국민연금을 협업파트너로 선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및 플랫폼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및 행정 협업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보안 기준 정립 및 사례 창출 협력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상생 협력 방안 마련 등이다. 두 기관은 올해 안에 협약내용별 세부 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김성주 이사장은 “오늘 협약은 단순히 AI 기술의 활용을 넘어 AI가 가져올 변

화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며, 두 기관의 AI 인프라와 경험, 기술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환영했다. 또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고, 공공서비스를 받길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직원들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업무에서 해방돼

더 창의적이고 가치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공공기관들에게 공공과 민간 협력의 새로운 모범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AI 전환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일자리센터 '현장면접의 날' 성료

전북도와 전북도일자리센터는 도내 구직자들에게 기업현장 중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현장면접의 날'을 운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행사는 백상코퍼레이션(주)의 미화원 3명 채용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20여명의 구직자들이 면접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면접의 날'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 직접 만나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직자들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면접에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전북도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들에게는 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처에는 적합한 인재를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은행>

## 전북은행, 장학기금 1억원 전달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26학년도 전북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지난달 31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은 전북애향장학생재단 윤석정 이사장을 만나 2026학년도 전북애향장학생 장학증서 1억원을 전달했다. 전북은행의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1992년부터 2026년도까지 35년간 전북애향장학생재단과 함께 꾸준히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 장학기금은 올해까지 총 18억5000만원을 전달하며 우수인재 육성에 대한 지역발전 초석 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여식에는 박춘원 은행장을 비롯해 전북애향장학생재단 윤석정 이사장과 제1기 장학생인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중

관 이사장, 장학생 및 가족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정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재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이 되듯, 따뜻한 손길로 장학사업에 동참해 준 전북은행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춘원 은행장은 “이번에 전달되는 장학금이 장학생들의 꿈을 향한 작은 시작이자 더 큰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며 지역 인재들의 여정을 변함없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군산시, 2026년 양성평등 기금 지원사업 공모 실시

군산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지역 내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발굴·지원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등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총 3,290만원 규모로 △여성인력개발 지원사업 △복지증진 사업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다문화 및 다양한 가족관계 증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교육 혁신 실현 2(題)

### '학교로 찾아가는 AI 캠프' 운영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하나로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AI 캠프' 운영에 나섰다.

학생들에게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까지 운영된다.

이번 교육에는 이리영등초와 이리서초, 익산황등중 등 7개 학교에 재학 중인 256명 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문 강사가 각 학교에 직접 찾아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게 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AI의 기본 개념 이해를 시작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및 콘텐츠 제작 실습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이미지와 영상 등 AI 창작 체험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함께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의적 체험 활동의 범위를 넓혀 안전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에서 바로 뛰어온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정읍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봄 방과 후 학습관' 수업 시작

익산시가 아동·청소년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2026년 1기 더봄 방과 후 학습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남중동 어울림 플랫폼에 위치한 '방과후 학습관'에서 진행된다. '방과후 학습관'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 평소 관심 있던 활동을 무료로 배우는 공간이다.

익산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원광대학교 사범대학이 위탁 운영을 맡아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드론 △웹툰 △코딩교육 △뷰티 △레고 △미술치료 등 모두 6개 과목으로 다채롭고 알차게 구성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전용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공영역의 방과후 교육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맞춤형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중동 사태 '비상경제 TF' 가동

### 유가 상승·수출 차질 대응 민생경제 안정 최선

군산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수출 물류 차질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운영해 비상경제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물가 안정 대책 추진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달 5~6월에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추가 5%를 캐시백으로 지원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석유시장 관리 강화 및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주요소 99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급가 인하분의 신속 반영을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 직원 차량에 요일별 운행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수출기업 전수조사 및 애로 해소 지원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025년 수출실적이 있는 관내 1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바이어 대금 미지급, 환율 변동 등 수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2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보전을 통해 최대 5%의 이차 지원으로 약 1.7% 수준의 금리 이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고자 사업장별 임대료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임대료 지원사업과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의 카드수수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해주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신선집행 통한 지역경제 회복 추진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투자 분야 중심으로 주요 사업 집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체감도 높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초보 귀농인 정착 지원 나서

### 귀농귀촌 멘토단 위촉식 1:1 맞춤형 컨설팅

정읍시가 지역 농촌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달 30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2026년 귀농귀촌 멘토단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이번에 위촉된 멘토는 선도 농가 대표, 선배 귀농귀촌인 등 영농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마주하는 행정적 절차부터 실제 경작 기술까지 폭넓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동 분야는 주민 갈등 관리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유통·판로 개척 및 6차 산업 인증, 시설재배·스마



지난달 30일 열린 '2026년 귀농귀촌 멘토단 위촉식'

<사진=정읍시>

트랩 등 품목별 영농 기술, 실제 정착 사례 및 품목 선정 노하우 등이다. 귀농 초기 단계에서 겪는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에서 바로 뛰어온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정읍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추진

### 농가당 0.1~30ha까지 올해 총 325ha 지원

익산시가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 농사짓기 힘들고 돈이 더 많이 드는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국비 2억 6,000여만 원을

들어 325ha 면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기간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유효한 농·임업인 및 법인이며, 농가당 0.1ha부터 30ha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무농약 최대 3년 △유기 인증 최대 5년으로, 지원 기간을 모두 채운 뒤에도 꾸준히 친환경 농사를 짓는 유기농 농가에도 일정 금액이 계속 지원된다.

직불금은 인증 단계와 작물에 따라 차

등 지급된다. 논·밭의 경우 유기 인증은 ha당 95만 원, 무농약 75만 원이다. 밭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 유기 지속 78만 원이다. 과수의 경우 유기 인증 시 ha당 최대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 유기 지속은 84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맞춤형 일자리사업 3건 선정

도비 3억6천9백만원 확보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총 3억6천9백만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산업단지 고용미스매치 해소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첫 번째 사업은 '군산시 사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취업상담, 구직역량 강화 특강, 취업박람회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7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신규 채용 촉진과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15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군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상담과 취업연계를 확대하고,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취업박람회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정착 여건 개선 두 번째 사업인 '군산 주력산업 안착 플러스 지원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 교통비·주거비 지원, 장기근속자 휴가비 지원, 기업 안전시설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혁신기업 경쟁력 강화 세 번째 사업은 '군산 혁신중소기업 시장지향 지원사업'이다. 지역 내 기업 간 협력과 납품이 가능한 자립형 산업구조를 구축해 고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관선 경제산업국장은 "군산시 일자리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를 준비한 결과, 3개 사업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 만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을 결합한 체계적 일자리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고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진안군, 고향사랑 상호 기부 동참

1천만원 기부...상생 발전 도모

정읍시와 진안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응원하며, 지난 3월 한 달간 공직자들이 앞장서는 고향사랑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상호 기부는 두 지자체 소속 공무원 각 1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1,000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등을

담례품으로 상호 선택해 지역 특산물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웃 자치단체인 진안군은 마이산, 윤일암반일암 등 청정한 생태 환경을 갖춘 곳으로, 그간 행정·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읍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이학수 시장은 "진안군과 정읍시 직원들의 고향사랑기부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호 기부를 정례화하고 나아가 지역 내 사회단체와 시민들까지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서 나운지구대, 신종 '노쇼' 선제적 차단

'특별 방법 활동' 돌입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 나운지구대는 최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신종 '노쇼(No-Show)' 사기로부터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최고 발생하는 신종 노쇼 사기는 군·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대형 연회 등을 예약한 뒤, 특정 주류의 대리 구매를 유도하거나 소방 점검을 빙자해 소방 용품 구매를 강요하며 선입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악질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나운지구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영세상인들의 재산 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집중 추진했다.

먼저,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종 사기의 핵심 시나리오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차체 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상가 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했다.

또한,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경찰관서·소방서 인근 대형 음식점 및 납품업체 등을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나운지구대(대장 김대중)는 "고물가 대형 연회 등을 예약한 뒤, 특정 주류의 대리 구매를 유도하거나 소방 점검을 빙자해 소방 용품 구매를 강요하며 선입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악질적인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나운지구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영세상인들의 재산 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집중 추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자전거대여소, 시 직영 전환

정읍시가 시민 편의 증진과 공공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던 자전거대여소를 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시는 지난 13년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대여소를 기적의 놀이터 개장과 운영 방식 전환 요구에 발맞춰 새롭게 개편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이용자 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여소 위치를 기존 기적의 놀이터 앞에서 내장산 문화광장 입구로 이전해 새 출발 한다.

대여용 자전거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1인용(성인·아동용), 2인용, 3·4인용 등 다양하게 구비해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정기 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말에도 정상 운영한다.

시는 개장에 앞서 시설 전반과 자전거 안전 점검을 마쳤으며 주말 이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힘썼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대여소 직영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내장산 문화광장 내 안전한 이용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반려 화분 만들기' 무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익산 입점리교분전시관이 꽃 피는 4월을 맞아 '2026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나만의 반려 화분 만들기'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달 31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입점리 고분과 아름다운 옹포의 벚꽃 산책로를 연계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자신만의 반려 화분을 제작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원예 힐링 체험이 진행된다.

이어 전시관과 고분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백제 시대의 무덤 축조 과정과 양식을 배우는 현장 학습형 투어가 함께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입점리교분전시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입점리교분전시관은 금동제 신발과 관모 등 백제 시대의 중요한 유물이 출토된 역사적인 장소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자생식물연구회 2~5일까지 '우리 꽃 전시회' 개최

정읍시 자생식물연구회(대표 이선희)가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연이아트홀에서 100여 점의 아름다운 야생화를 선보이는 '마음의 치유 우리 꽃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생식물연구회 소속 회원 18명이 정성껏 가꾼 100여 점의 우리 꽃 자생화가 전시된다. 개회식은 개막 첫날인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야생화 심기 체험과 판매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시민들이 전시된 꽃을 눈으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화분에 꽃을 심어보며, 우리 꽃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했다.

자생식물연구회는 세종국립수목원과 한국야생화협회 등 전국 단위 전시회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전시회가 지역 자생식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유튜버 썬양, 부안 갯벌 알린다

## 갯벌 체험 및 부안 먹거리 먹방... 참여형 ESG 캠페인 확산 기대

부안군은 대한민국 대표 먹방 유튜버 썬양이 부안을 방문해 갯벌 체험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며 ESG 한평·생 부안 갯벌 프로젝트 홍보에 나섰다



먹방 유튜버 썬양이 푸꾸미 요리 등을 맛보며 부안의 먹방 콘텐츠를 선보였다. <사진=부안군>

부안군은 대한민국 대표 먹방 유튜버 썬양이 부안을 방문해 갯벌 체험과 지역 먹거리를 즐기며 ESG 한평·생 부안 갯벌 프로젝트 홍보에 나섰다

썬양은 평소만 일대 갯벌에서 직접 조개를 캐고 생태를 관찰하는 체험에 참여하며 살아있는 갯벌 생태계를 몸소 경험했다. 체험 과정에서 썬양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갯벌을 지키는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단순 관광을 넘어 체험·환경·먹거리·콘텐츠가 결합된 체류형 관광 모델을 강화하고 ESG 가치에 대한 대중 인식을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대한다"고 말했다.

# 고창군,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 세계유산 브랜드 가치 문화관광 경쟁력 인정

고창군이 지난달 31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31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관광산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1996년에 제정된 지방자치 시상제도로, 지방행정의 혁신과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문심사위원회의 정성평가 및 공적 인터뷰, 3차 만족도 조사를 거쳐 전국 15개 지방정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창군은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품은 도시 고창" 브랜드 강화를 통해 지역 고유의 세계유산과 문화·자연자원을 체계적인 관광브랜드로 발전시켰다.

아울러 새만금 등 서해안권 발전과 연계해 고창종합테마파크, 명사심리해양관광지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에 힘쓰고, 서해안권 핵심 관광거점으로서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관광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창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시 '청년창업 점프업' 본격 가동

## 7년 이내 창업기업 통합 지원... 15일까지 신청

김제시는 청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청년 스케일업 컨설팅 지원사업 '청년창업 점프업(UP)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의 핵심 청년 지원정책인 '김제 희망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업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매칭해 컨설팅을 제공하며, 추가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제 청년창업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멘토 매칭 △경영 전략 수립 등 성장 통합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김제시 소재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이며,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청년창업 점프업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청년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 부안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중동사태 장기화... 최대 100만원까지

부안군은 중동 불안으로 인한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소재한 2025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2025년 기준 카드매출액의 0.4%)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한 업체, 택시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 은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순차적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가능하며 군은 2024년도부터 지원금 중 3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동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1112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억 38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김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 추진"

### 소비 촉진·민생 안정

김제시는 최근 중동 지역 경제 불안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고,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일부터 5일 개최되는 꽃빛드림축제 행사시 3% 캐시백 이벤트에 이어, 시가 4월 한달간 캐시백 이벤트를 추진한다. 현재 시는 김제사랑카드 충전시

12% 선할인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중동상황 비상경제 대응으로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김제사랑카드 결제시 2%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 하는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시 선할인 12%를 포함해 최대 14%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외경제 불안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제사랑카드 캐시백 이벤트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부안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오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설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에서 설치기업을 선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특정 지역의 주택 및 상업·공공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지역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택을 기준으로 태양광(3kW), 태양열(600L), 지열(17.5kW) 설비 설치 시 군민 부담은 각 154만원, 209만원, 407만원 수준이며, 설비 도입 시 전기요금(연료비) 절감과 기후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어 군민들의 사업 참여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부안군 내 전체 읍면이며, 신청 서류는 △공모사업 신청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로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건축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자원 안보 위기로 인해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돼 군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부안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2026년 김제사랑장학생' 오는 6~10일까지 모집

김제사랑장학생재단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2026년 김제사랑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제사랑장학생은 △일반장학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 △꿈키움장학금 △희망나눔장학금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대학생이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예체능 특기생을 위한 꿈키움장학금은 인성 대회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나눔장학금 중 지역대학 재학생 분야는 해당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장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초·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대학생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성주 이사장은 "김제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졸포만 노을빛 정원 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제2호 지방정원인 부안 졸포만 노을빛 정원에서 '노을빛 정원에 머물다'라는 주제로 정원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자연 속 힐링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포만 노을빛 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원해설, 정원 갈래밭 만들기, 야생화 수직 만들기, 정원 식물 심기 체험 등이며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주말을 이용해 총 20회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을빛정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정원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 고창군,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 민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고창군이 민원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창신협 본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발급기는 고창신협 기부로 설치됐다. 이번 설치로 고창신협과 고창전통시장, 인근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관공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협본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간은 평일 9-6시, 토요일은 오전 9-12시,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총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게 된 군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능도 추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저서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글자 크기와 버튼 크기를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키패드 교체와 긴급 호출 음성 안내 기능 등을 더해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고 외국인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국어 서비스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또한, 발급기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애 또는 고장 발생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도우벨 설치 등으로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정장은 "작은 변화가 큰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의료비 지원

김제시는 2026년 유니세프 '프로젝트 169'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프로젝트 169'사업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 중 16.9 조항인 '2030년까지 출생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사업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비롯해 기업,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모델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0세부터 12세까지의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을 발굴해 '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등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을 출산할 예정인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권 보장에도 힘을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기준은 외래진료 비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의료진료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원(1차)급 의료기관 이용 시 2,000원, 병원(2차)급 의료기관 이용 시 4,000원의 본인부담금(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산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외래진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원(1차)급 의료기관은 총 진료비의 10%, 병원(2차)급 의료기관은 20%의 본인부담금(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산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인권친화도시로서 지역사회 내 아동의 인권 보호와 이주 아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1인 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재)고창군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진로 준비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1인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기능사 자격'과 '고3온전면 자격증'의 2개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기사·기능사 분야(기사급 이상 50만원, 산업기사·기능사급 20만원)=2026년 1월1일 이후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창 출신 대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두고 있어야 한다. 단, 대학생의 경우 고창지

역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지역 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공고일 기준 3년 전부터 기준일자가 적용. △온전면허 분야(3월1일 이후 학원 등록 후 면허취득 학생에게 30만원)=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상. 해당 사업은 1인 1회, 1개 분야에 한해 지원된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자격증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 준비 과정에 시 중요한 자산이 되는 만큼, 이번 지원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 테크노2산단 '완판' 첨단 집적 가속

119만㎡ 산업시설용지 전량 매각  
37개 기업 1조 2천억 투자 유치  
수소·이차전지 중심 거점 도약

완주군이 호남권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시행사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100% 완료하며 지역 산업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산업단지 조성 이후 약 6년간 추진해 온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시행사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 119만㎡(약 36만 평)가 모두 매각하여 최종 분양 완료료를 달성했다.

특히, 마지막 남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덕산에테르씨티(주)와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지 전체 분양이 마무리됐으며, 이로써 완주군은 총 37개의 유망 기업 유치를 완료했다.

제2산단 입주기업으로는 비나텍(주), 일진하이솔루스(주), 아데카코리아(주)



테크노2산단 전경

등 수소와 이차전지, 첨단 소재 분야의 핵심 기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와 함께 약 1,84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그동안 산업 특성과 시장 흐름을 반영한 단계별 전략을 통해 분양을 추진해 왔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차전지 및 수소 분야 엔지니어링 기업 유치를 집중했으며, 2023년에는 스마

트 물류와 산업 클러스터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어 2024년부터는 수소 기업 유치와 단지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며 대규모 산업용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119만㎡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시설용지가 완판된 것은 완주군의 우수한 입지와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사진=완주군>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통합돌봄 가동...특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병원·기관 협약 지역돌봄 체계 구축  
가사·병원동행 등 생활지원 확대

순창군이 의료·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내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희망병원, 순창시니어클럽, 순창지역자활센터, (유) 두레건축 등과 함께 '2026년 순창군 통합돌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통합돌봄 특화사업은 퇴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영양도시락



<사진=순창군>

지원 △가사지원 서비스 △병원동행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 분야별 역할을 나눠 대상자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퇴원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까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수덕·금성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본격화

유해시설 철거·정주환경 전면 개선  
가꾸살 기반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업 대상지는 대산면 수덕·금성지구 일원이다.

이번 공모는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이 가능한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해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수덕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금성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사업 타당성과 혁신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산면 일원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가꾸살 생산단지인 에코(ECO) 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18호)와 주민센터인 '금성 힐링공원'을 조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덕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지역 특화 자원인 가꾸살과 스마트팜 원예작물을 활용한 '농촌체험융합시설'과 '농촌(공동)가공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순 생산을 넘어 가공·체험·유통·창업까지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농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금성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던 유해시

설을 전면 매입철거한다. 해당 부지에는 스마트팜 교육생과 방문객을 위한 '단·장기 복합체류공간(18호)'과 주민센터인 '금성 힐링공원'을 조성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덕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지역 특화 자원인 가꾸살과 스마트팜 원예작물을 활용한 '농촌체험융합시설'과 '농촌(공동)가공시설'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단순 생산을 넘어 가공·체험·유통·창업까지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농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어린이체육관 학교 수업 공간으로 개방

완주교육지원청 협약사용료 면제  
평일 낮 저이용 시설 학교서 활용

완주군이 평일 낮 시간대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체육관을 관내 학교의 체육 수업 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며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탠다.

지난달 31일 유희태 완주군수와 조영민 완주교육장은 완주군청에서 '어린이체육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이용이 저조한 공공 체육 시설을 학교 체육 활동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고, 체육관 부족으로 여러

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완주군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 어린이체육관 전용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체육 수업과 각종 체육 행사 시 해당 시설을 우선 활용하며, 체육 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2024년 12월 봉동읍 둔산3로에 개관한 완주군 어린이체육관은 다목적체육관과 체력 단련장, 탁구장, 풋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갖춘 복합 체육시설이다. 연간 이용객은 1만 8,000여 명

수준이지만 평일 주간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으로 체육관 부족으로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학교 현장에 송풍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385개 학교스포츠클럽, 8,600여 명의 학생 체육활동 여건도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앞서 전북교육청과 제2야구장 조성 및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육 인프라 공동 활용을 확대해오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체육 시설의 공익적 활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드론 실증기반 공공서비스 상용화 시동

기술개발 실증지원 기업 모집  
산림재난·고도화 분야 집중

남원시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을 기반으로 드론 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 남원시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7일까지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 규제특례를 활용해 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드론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3개 내외의 기업을 모집하여 총 1억 5,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는 단순 실증을 넘어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중심 사업으로 전환하며, 올해는 남원시 지역 특성과 공공수요를 반영해 △산림 △안전재난 △국산 드론 고도화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산림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특히 국산소형



<사진=남원시>

드론(FPV)을 활용한 산불감시체계 구축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재난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수색 및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공공 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며, 국산 드론 고도화 분야에서는 임무특화형 드론 개발과 부품 고도화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업은 드론 운영 및 기술실증이 가능한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산림, 안전재난, 국산 드론 고도화 분야 중 사업계획을 수립해 오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농번기 인력난 '송풍' 필리핀 계절근로자 109명 입국

완주군이 필리핀 미나시와 팔로시에서 온 계절근로자 109명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농촌 인력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입국한 근로자들은 고산농협과 이서농협, 그리고 개별 농가에 배치돼 실질적인 농작업에 참여하며 지역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환영식에 앞서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실이 주관하는 입국 후 교육 세미나(PAOS)를 진행해 한국 생활 적응과 근로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완주소방서와 완주경찰서가 각각 화재 예방 교육과 외국인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정착을 도왔다.

또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농촌인력지원팀은 근로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준수사항과 기본적인 농작업 요령을 전달했다.

군에는 현재 31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 중이며, 라오스 근로자 22명과 캄보디아 근로자의 추가 입국도 예정돼 있다.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총 375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현재까지 모든 입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찾아가는 농작업 안전컨설팅' 추진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 인력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사고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참여 농가를 총 3회 방문해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제시 △인형 점검기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농업기계 및 작업장 내 사고 위험 요인 점검을 비롯해 소음·진동·분진·농약 등 유해 요인 분석, 안전관리 개선 지원, 재해 예방 교육 등이다. 시는 안전용품과 기술자료를 함께 지원하고 현장 교육을 병행해 농가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주 중심이며, 특히 5인 이상 고용 농가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서울시 귀농귀촌 상담·맞춤형 정착 지원

전북 귀농귀촌센터서 교육생 대상  
개인별 정착 로드맵 설계 교육

완주군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최근 양일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상담·홍보 교육'을 운영하고,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게 정책 안내와 사례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첫날에는 귀농귀촌 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완주군 귀농귀촌 특강이 진행됐으며, 선배 귀농귀촌인과

의 멘토와의 대화(그룹톡) 시간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현실적인 조언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귀농귀촌 사례 발표와 함께 개인별 로드맵 설계 교육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정착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멘토와의 대화 프로그램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참여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왔다.

한편 완주군은 앞으로도 도시민 대상 상담·홍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류형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정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요천서 '봄꽃·음악·막걸리' 한자리에

요천 봄꽃 음악회 4~5일 개최  
노래방 등 체험형 콘텐츠 강화

남원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요천 둔치 월궁광장에서 '2026 봄꽃이 피어나는 요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음악회는 형식적인 개막식을 생략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해 방문객의 만족도와 현장 체험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사 기간 월궁광장에서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매직 버블·별문쇼'를 비롯해, 시민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행운의 96 노래방'이 운영된다. 특히 노래방 이벤트는 제96회 춘향제의 사전 홍보와 연계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

조시킬 예정이다.

남원의 대표 문화 자산인 '신관사포 부인행사' 무용 공연과 함께 요천의 봄바람을 수놓을 고품격 무대도 이어진다. 4일에는 감성적인 발라드 공연이, 5일에는 남원시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무대가 마련되며 봄의 정취를 더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막걸리 축제'와 병행 개최돼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요천의 수려한 봄꽃을 배경으로 막걸리와 다양한 먹거리를 만끽할 수 있으며, '한궁 체험'과 '영수증 이벤트'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남원시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행사장 내 위생 및 환경 정비 등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 'YF' 개최...참가 접수

군민의날 연계·공연비 일부 지원

순창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상은)은 오는 17일 오후 순창읍 중앙로 일대에서 제2회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 'YF(Youth Festival)'를 개최한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 즐기는 순창 대표 청소년 축제로,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64회 순창군민의 날'과 '문집 골목페스티벌'과 연계해 체험부스와

다양한 청소년 공연이 어우러진 더욱 활기찬 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재능과 끼를 펼칠 청소년 개인 또는 동아리·팀 단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10일까지 가능하며,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청소년수련관(063-652-1318)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참여 팀에게는 소정의 공연비가 지원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문화재단 '사이:예술학교' 장애예술교육 협력 본격화

완주문화재단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지역 기반 장애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재단은 최근 재단 커뮤니티실에서 마음사랑방, 예술재활원, 전북부른학교, 한사랑 정신재활시설 등 4개 기관과 함께 '2026 장애예술교육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자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어 재단은 지난달 30일 '2026 장애예술교육지원사업 '사이:예술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운영 구조를 공유하고 참여기관, 예술가, 멘토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이:예술학교'는 기관과 예술가가 협력하는 프로젝트형 장애예술교육 사업으로, 참여자 중심의 예술 경험을 확대하고 예술가의 현장 기반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 안내와 함께 참여형 워크숍이 진행돼 장애예술교육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사업은 4월부터 7월까지 프로젝트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모임 및 멘토링을 통해 과정 중심의 교육 모델을 축적하고, 8월에는 성과공유주간을 통해 전시, 오픈클래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임실 시사면, 농악단 창단 주민 화합 축제 성료**

임실군 시사면 기초생활거점 주민위원단은 지난달 27일 시사면 주민자치회(2단계)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주민 화합 축제 및 농악단 창단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사업의 핵심 목표인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실천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할 '시사면 농악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시사면 기초생활거점 주민위원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사면이 활기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장수읍,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장수군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4일 방문민원인의 안전과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수파출소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장수읍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장수파출소 경찰관 등 총 10명이 참여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 개입과 진정 유도 △폭언 및 폭행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촬영·녹음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긴급출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 및 제압 과정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원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경찰 연계까지 전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민원실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임실군(군수 심민)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사업연도 종료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포함된다.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석화·철강·광철·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자동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기업하기 좋은 전북 '우수'**

**인구 7만 미만 시군서 유일하게 4년 연속 포상금**

무주군이 '2025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구 7만 미만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포상금을 수상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장려', 2023년·2024년 '우수' 평가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도내 14

개 시군의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을 격려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번 평가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무주군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추진, △인허가 등 신속 처리,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기업 규제 해소 등 16개 지표에서 고르게 호평받았다.

특히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식품제조가공업소등록 신속 처리 등 기업의 애로사항 총 6건을 해결했으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1.5km)을 추진하는 등 청년 근로자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청년 친화형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임실형 RISE사업' 본격 가동**

**교육부터 축제까지 반려산업 메카 도약**

임실군과 원광대학교 반려동물산업학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오수면에 위치한 오수반려누리에서 '2026년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임실'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원광대학교와 협력하여 오는 20일부터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 '동물매개심리상담사(2급) 교육'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1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

먼저 '반려동물관리사 교육'은 4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월·화요일 저녁(18:00~21:00)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이해부터 행동학, 동물보호법, 위생 미용, 아로마 테라피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어 '동물매개심리상담사(2급) 교육'은 4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저녁(18:00~21:00) 총 12회

동안 운영된다. 반려동물의 심리 파악과 상담 과정 실습은 물론, 펫로스 증후군 케어 등 현대 사회에서 수요가 높은 심리 지원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은 오수면에 위치한 오수반려누리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수강료와 교재비는 전액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연령과 지역 제한 없이 일반인 및 교·대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정별 모집 인원은 각 20명이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수)부터 4월 15일(수)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가능하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발전소 주변 주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무주양수발전소와 맞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 예방접종 비용 지원 약속**

무주군은 지난달 31일 군청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고령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대상포진을 예방하고 고가의 접종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측은 무주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적상면)에 거주하는 60세~64세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무주군은 백신 구입 후 5월부터 보건 의료원에서 무료로 접종할 예정이다.

이지영 보건행정과장은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고령층에서 특히



무주군은 지난달 31일 군청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무주군>

빈번하게 발생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동반하지만, 접종비 부담이 커 예방접종률이 낮다"라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마음을 모은 만큼 이번 협약이 의료사각지대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보건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제9차 장수교육정담회 개최**

**공주대 양병찬 교수 발제 5개 면 활동 사례 공유 지역 소멸 대응 방안 모색**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는 지난달 25일 마을의 운기가 피어나는 학교, 그 뿌리가 되는 교육발전협의회를 주제로 제9차 장수교육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와 교육청 중심의 기존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장수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담론을 넘어 '희망의 교육 자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교수는 "아이들의 삶과 지역의 자산인 자연, 문화, 인물이 분리되지 않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며 "중앙 중점심 의 입시 위주 교육이 오히려 지역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스



스로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계북면, 계남면, 천천면, 산서면, 변암면 등 5개 면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계북면 교육발전협의회는 행복주책과 연계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 7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등 전학생 유입 성과를 거뒀으며, 변

암면 교육발전협의회는 '달밤 캠프'와 지역 출신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서면 교육발전협의회는 학생 귀가 차량 운행과 이장단이 중심이 된 '마을 교육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계남면 교육발전협의회는 지역 인프리를 활용한 '골프 특화 수업'과 '어린이 허준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배우 이유진과 유튜브 홍보 강화**

**유튜브 채널 '임실엔TV' 개편 3월31일 첫방송 2주간격 공개**

임실군이 배우 이유진과 함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를 개편하고 본격적인 디지털 소통 강화에 나선다.

군은 신규 영상 콘텐츠 '최고의 한 잔'을 지난달 31일부터 선보이며,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속형 온라인 홍보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단발성 홍보를 넘어 2주 간격으로 제작·공개되는 '연속형 시리즈'로 기획됐다.

특히, 도시 청년 배우 이유진의 시선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임실

의 다양한 매력을 보다 친근하고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달 31일 공개한 1화에서는 산업목장을 배경으로 산양을 돌보고 직접 젖을 짜보는 체험을 통해 원유생산과 가공까지의 전 과정을 조명한다.

군은 이번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역주민의 일상과 숨은 명소, 계절별 풍경, 특산물 등 임실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독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기반의 지역 홍보 효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결핵 예방 캠페인 실시**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과 '2026년 결핵 예방주간'을 맞아 지난달 25일 장수시장 일원과 장수 시외버스터미널일원에서 '함께 해요 결핵 ZERO!' 결핵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의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의 결핵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결핵 예방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

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이나 재채기 시 손수건이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객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장수군보건의료원 3층 결핵실에서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객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결핵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기 검진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임실군은 본격적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지난달 27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임실부군수 주재로 임실군청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임실소방서, 임실경찰서, 무주국유림관리소, 군부대, 임실군산림조합, 한국전력공사,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산불

방지 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 △산불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공조체계 확립 △진화장비 및 인력 지원 협력 △취약지역 집중 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불은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촉식**

**전문가·지역예술인 등 15명 위촉 15명이 참여했다.**

진안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성도 높은 문화시설 건립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문화예술 전문가, 지역 예술인,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건축·공인 기획·조명 등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설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실제 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 거점 공간'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위촉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진안군의 문화적 자부심이 될 공간"이라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지역 사회의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고품격 문화예술 시설을 건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정읍 덕천면, '무병장수 기원' 장수어르신 축하 물품 전달

정읍시 덕천면은 지난달 30일, 지역 내 장수어르신 덕을 직접 방문해 건강과 장수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주 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김용상, 김정술 어르신 덕을 찾아 100만원 상당의 축하 물품과 함께 따뜻한 축하 인사를 건넸다.

축하 물품을 전달받은 김용상 어르신은 "직접 찾아와 건강을 물어주고 선물까지 챙겨주시니 큰 힘이 되고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현주 면장은 "어르신께서 건강할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지역사회에 큰 복"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연 기자



### 임실 관촌면지사협, 취약계층에 영양반찬 꾸러미 지원

임실군 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지현, 조래춘)는 지난달 26일 제철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영양 반찬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특화사업은 조래춘 민간위원장의 조리용 칼 후원과 사선대 로타리 클럽의 매추리알 후원으로 훈훈함을 더했으며, 협의체 위원 15여 명이 일일이 김치, 매추리알 장조림 등을 정성껏 만들어 독거 어르신 등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래춘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꼈고 이웃들이 반찬을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특화사업 활성화와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지현 관촌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완주군 공무원 노조-무주군, 700만원 상호기부

### 지자체 간 화합유대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무원 노조(전국자치단체 공무원본부 완주군지부)원 70명이 지난달 31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7백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무주군을 찾은 김상곤 완주군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도내 지자체 간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무주군과 상호 기부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도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에 앞서는 공무원 노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과 상호 기부하기로 한 무주군 공무원 노조(전국자치단체 공무원본부 무주군지부)는 1일 완주군을 찾아 7백만 원을 기부한 다.

한편, 무주군 공무원 노조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꾸준히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완주군, 소양 성요셉동산양로원에 차량 1대 전달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4천만원 지원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무료 양로시설인 '성요셉동산'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이동 수단을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완주군은 군수실에서 '성요셉동산양로원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차량 지원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완주군 지정 기부금을 통해 추진했으며,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스타리아 차량 1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선숙 성요셉

동산 시설장을 비롯해 입소 어르신 대표 3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기증된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나들이,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성요셉동산은 1998년에 설립된 무료 양로시설로, 별도의 운영보조금 지원 없이 어르신들을 보살펴온 곳기에 이번 차량 지원의 의미가 더욱 크다.

안선숙 시설장은 "기증 차량의 노후화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동할 때마다 걱정이 많았는데,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고창 해리면-임실 종합민원과, 상호기부

고창군 해리면(면장 홍정목)과 임실군 종합민원과(과장 홍진희)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호 교차 기부하며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기부는 고창군 해리면과 임실군 종합민원과 30여명이 고향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교차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관 간 유대 강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 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홍정목 해리면장은 "이번 상호 교차 기부는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확산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온도농장태양별, 김제시에 장아찌 등 물품기탁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농업회사법인 (유)온도농장(대표 송현주), 태양별(대표 김대천)이 관내 저소득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물품을 공동 기탁했다고 밝혔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전해진 이번 기탁 물품은 돼지감자 장아찌와 여주차 티백 등 총 200만 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탁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에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공동 기탁에 참여한 송현주 (유)온도농장 대표와 김대천 태양별 대표는 "포근해진 봄날씨만큼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어 함께 뜻을 모았다"며 "그동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주)원진알미늄, 김제시에 라면 50박스 기탁

김제시는 지난달 31일, 전북 완주군 소재의 창호 전문기업인 (주)원진알미늄(대표 원태연)이 관내 저소득 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라면 50박스(1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주)원진알미늄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리 및 창호 공사 전문 중소기업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다. 이번 기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주)원진알미늄 원태연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외된 곳을 살피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나눔이 큰 힘이 된다"며 "(주)원진알미늄이 전해준 소중한 물품은 우리 이웃들의 끼니 걱정을 덜어주는 따뜻한 위트가 될 것이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인사

#### ▲ 농촌진흥청 인사발령(2026. 4. 1.자)

##### ▣ 과장급(직위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안전과장 김 상 범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정 광 호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 증북부작물연구센터장 서 정 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채소기초기반과장 최 학 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과수기초기반과장 김 윤 경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특용작물재배과장 박 부 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장 김 경 운

##### ▣ 과장급(전보)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지 상 윤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장 옥 현 중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과장 김 경 수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장 장 재 기 △국립식량과학원 기초식량작물부 재배생리과장 김 춘 송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부 발작물개발과장 고 종 민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부 경지이용작물과장 오 기 원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 식생활영양과장 신 성 휴

##### ▣ 도농업기술원 국장(직위승진)

△경기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 최 하 영

## 꽃가루 알레르기증상

알레르기비염

파부염

# 꽃가루 알레르기

알레르기 결막염

천식

### 생활 속 관리와 예방법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관리하세요

- ✓ 외출 전 '오늘의 꽃가루 농도' 확인하기
- ✓ 외출 시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 착용하기
- ✓ 꽃가루 농도가 적은 늦은 오후, 비 온 직후 외출하기
- ✓ 귀가 시 옷을 털고 겉옷은 현관에 보관하기
- ✓ 바로 세수·세안, 샤워 후 옷 갈아입기
- ✓ 주기적으로 실내 청소, 짧게 환기하기
- ✓ 베개와 이불은 주 1회 이상 온수로 세탁하기

〈一事一言〉



4대강 보 해체와 반도체, 억지 연결은 설득력이 없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보 해체 아닌 물 관리 문제, 트집 아닌 구조로 봐야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보 해체가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며, 산업과 정책을 연결시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가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물을 대는데 우리는 물을 뺐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선거와 산업을 연관짓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논쟁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 해체=산업 위협? 비약

결론부터 말하면, 4대강 보 해체와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인과 관계로 연결되는 사안 아니다.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은 산업이지만, 그 용수 공급 구조는 특정 하천의 보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다.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은 다목적댐과 광역상

수도 체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자체 정수 및 재이용 시스템도 고도화돼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은 하루 수만 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지만, 상당 부분을 재이용하고 있다.

이는 외부 수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며, 특정 하천 수위 변화가 곧바로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보 해체가 반도체 산업을 직접 위협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해석에 가깝다.

물론 하천 수위 변화가 지역별 취수 여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보 해체라는 단일 변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뭄 대응, 대체 수원 확보, 용수 관리 체계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동하는 영역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물 관리 시스템이 핵심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보 해체를 단순히 연결하는 발언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정책은 사실과 구조 위에서 평가돼야 한다. 정부의 사업 계획과 물 관리 체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비판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론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일부 사례나 단편적인 논리를 끌어와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공론 왜곡, 문제 더 키운다

정치적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과 동떨어진 채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오히려 공론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이며, 물 관리 역시 국가적 과제다. 이 두 가지를 단순한 구도로 엮어 대립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 논쟁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되짚어볼 기회가 되어야 한다.

보를 유지할 것인가 해체할 것인가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산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다. 기후 변화와 가뭄, 산업 수요

증가를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물 관리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해법은 통합 관리 전략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논쟁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감정적 공방을 넘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끌어와 불안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그 전체 위에서 이뤄질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4대강 보 해체는 산업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다. 물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 본질을 외면한 채 트집잡기식 논쟁에 머문다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자명하다. 이제는 논쟁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때다.

사설

햇빛소득마을, 전북형 에너지복지 모델로 키워야

전북자치도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의 본격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지원체계를 가동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양적 성장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은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시도는 정책의 방향을 ‘주민 체감형’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지닌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를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그 전체 위에서 이뤄질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4대강 보 해체는 산업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다. 물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 본질을 외면한 채 트집잡기식 논쟁에 머문다면,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자명하다. 이제는 논쟁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때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경제적 조직을 아우르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한 것은 매우 실질적인 접근이다. 주민 설명회와 상담, 협동조합 조직화 지원부터 부지 발굴, 인허가, 계통 연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사업의 성과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특히 유휴부지 발굴과 전력망 연계 가능성 사전 점검은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신뢰’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사례가 적지 않다. 햇빛소득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수익 구조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공개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한다. 발전수익의 안정적 배분 구조, 장기적인 유지관리 체계, 쓰고 남은 전력을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기술적 요소에 대한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업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 민관합동 지원단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이러한 구조적 기반을 함께 설계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전남 신안군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의 성공 사례가 증명했듯이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발전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순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가 구축한 민관 협력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모범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촘촘한 현장 지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이 이름 그대로 ‘햇빛이 곧 소득이 되는’ 정책으로 뿌리내릴 때, 전북의 에너지 전환은 비로소 ‘복지 모델’의 한 축으로 완성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문화재 열전

순창 남계리 석장승 (국가민속문화유산 제102호)

-분류 - 유적건조물, 마을신앙  
-지정일 - 1979년 1월 26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966-12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봄, 사월에 / 이재무

꽃이 피는 속도를 그대 아는가  
시속 40Km  
남에서 북으로 나는 달리며  
숨이 가쁘다네  
저 사람의 속도  
뒤따르며 내 쉽게 지치는 것은  
몸이 지친 탓만이 아니라네  
꽃으로 살지 않고  
함부로 꽃 사랑하고 노래한 죄  
저리 커서 달아나는 님  
길의 고비마다 불쑥 얼굴 내미는  
돌팍과 자갈의 충고  
그걸 알고 부르든 마음의 맨발바닥

꽃이 피는 속도에 숨이 가빠서  
나는 슬프네 나는 기쁘네

시인 약력 : 1958년 충남 부여 출생. 한남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삶의문학’, ‘문학과사회’ 등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2회 난고문학상과 제15회 편운문학상, 제17회 이육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선달그믐,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 벌초, 몸에 피는 꽃, 한 사람이 있었다 등이 있다. 시선집으로는 오래된 농담, 길 위의 식사, 얼굴 등과 시평집으로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핀다면, 산문집으로 생의 변방에서 등 다수가 작품이 있다.

“세대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전북의 이야기”

https:// 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063)282-9601 기사제보 063)282-9600

# 제4회 고창 벚꽃축제



## “봄, 봄, 봄” 다시 피어난 설렘

### 4월 3일~5일 사흘간 고창 석정온천지구서 개최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고창의 벚꽃이 다시 한 번 설렘을 전한다. 고창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봄, 봄, 봄’을 주제로 고창읍 석정리 일원에서 ‘제4회 고창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석정 벚꽃길은 수령 20년 이상의 벚나무가 약 1km 구간에 걸쳐 이어지며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만개 시기에는 벚꽃 터널이 펼쳐져 방문객들에게 인상적인 봄 풍경을 선사하는 고창의 대표 벚꽃 명소다.

(편집자 주)

군은 LED 조명과, 바닥 경관조명 등을 활용해 벚꽃과 빛이 어우러진 야간 경관을 연출한다. 벚꽃 구간 곳곳에는 감성적인 포토존이 설치되고,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벚꽃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야간 벚꽃길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이 벚꽃길을 따라 여유롭게 봄밤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첫날(4월 3일)은 어린이 공연(버블쇼, 풍선쇼)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오후에는 14개 읍·면이 함께하는 ‘Bloom Bloom(뽀뽀) 군민 활력 운동회’가 펼쳐진다. 미니게임과 퍼레이드 형식의 벚꽃길 걷기를 통해 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저녁에는 개막식과 개막공연이 진행되며, 어린이 합창단 공연과 군민 참여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후 이어지는 축하공연과 함께 야간 벚꽃길이 어우러지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둘째날(4월 4일)에는 어린이 대상 ‘헬로카봇 심어롱쇼’가 두 차례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인 ‘벚꽃 쏘나무 뽀내기’와 ‘벚꽃 도파민 : MZ고사’가 진행돼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한다. 저녁에는 ‘봄봄봄 콘서트’가 열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마지막날(4

월 5일)에는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인 ‘상하농원과 함께 하는 딸기 파티쉐’가 운영된다. 고창에서 생산된 딸기와 식재료를 활용해 케이크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오후에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벚꽃엔딩(군민 음악회)’이 열려 노래, 춤, 악기연주 등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보고, 먹고, 즐기는 벚꽃축제  
올해 축제는 먹거리와 체험 콘텐츠를 강화해 단순 관람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창 한우, 바지락, 풍천장어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한우버거, 바지락라면, 장어꼬치구이 등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인다.

또한 복분자와 딸기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주류도 함께 제공돼 미식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벚꽃사진관, 고창여행 놀이터, 플라마켓, 전북 캐릭터 굿즈샵 등 다양한 체험·판매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방문은 편하게, 축제는 쾌적하게  
또한 축제 기간에는 고창 꽃정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벚꽃축제장과 꽃정원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해 방문객들이 봄꽃을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교통 관리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 힘쓴다.

/고창=백종규 기자



#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 저기, 농촌에 새바람이 불어와요 ”

농업인과 지역 농축협과의 협동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으로부터  
전 세계로 나아가 자신감으로부터

농촌의 밝은 미래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장 조 상 완  
부안농협조합장 김 원 철  
남부안농협조합장 최 우 식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 정 식  
변산농협조합장 김 병 식

계화농협조합장 이 석 훈  
하서농협조합장 기 세 원